**리눅스에 대하여**

리눅스는 1991년 11월 리누스 토르발즈에 의해 개발되어 멀티유저, 멀티태스킹을 지원하는 유닉스 운영체제를 모델로 만든 개인컴퓨터용 공개 운영체제이다.

공개된 운영체제라는 것은 소스가 오픈되어있다는 의미인데,

리눅스는 어떤 사람이 소유한 것이 아니라 소스를 공개해 전세계 개발자들의 힘으로 개발된 것이다.

리눅스의 개발 역사는 불과 10년도 넘지 않았지만 리눅스는 성능과 안정성에서 몇 배의 개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유닉스를 능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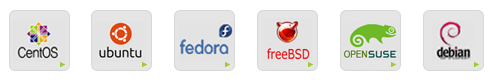
현재 리눅스는 상당수의 웹 서버와 모바일 장치를 구동한다.

특히 서버 쪽에서 리눅스의 지위는 엄청나다.

또한 서버용 프로그램들의 대부분이 리눅스를 지원하거나 리눅스 상에서 개발되고 있다.

리눅스는 데스크탑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용성, 안정성이 높아지고 리눅스 데스크탑용 소프트웨어의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리눅스의 종류**

****

1. Cent OS

업스트림 소스인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무료 기업용 컴퓨팅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리눅스이다.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소스코드를 그대로 빌드하고 레드햇 상표대신 CentOS라는 상표가 붙기만 하므로 레드햇 엔터프라이즈 리눅스의 업데이트를 가장 잘 따라가는 리눅스로 알려져 있다. 단, 레드햇의 기술지원을 받지는 않고 자체 커뮤니티에 의해 관리된다.

● 장점

- 레드햇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 안정적이다.

-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용률을 띄고 있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단점

- 레드햇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커뮤니티 단위의 지원을 받게 되며 레드햇 자체의 프로그램은 사용할 수 없다.

2. 레드햇

레드햇 리눅스는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많은 배포판으로 평가 받는다.

레드햇 리눅스는 지원없이 무료로 사용하거나 기술 지원을 받는 리눅스 배포판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는 레드햇 사(社)가 유료로 기술지원을 하는 기업용 리눅스인 '레드헷 엔어프라이즈 리눅스'와 페도라 프로젝트에서 개발 하고 있는 페도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장점

- 서버의 안정성이 높다.

- 쉬운 설치 방법이 있다.

- 지속적인 관리와 최신기술 지원, 보안업데이트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단점

- 설치는 쉽지만 설치 후 관리가 갈수록 힘들다.

- 최신 기술 지원에 대한 것은 유료이다.

3. 페도라

페도라는 리눅스 커널에 기반한 운영체제와 레드햇의 후원과 개발 공동체의 지원아래 개발된 일반적인 목적을 가진 RPM기반의

리눅스 배포판이면서 개인이나 기업 등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으진 리눅스 이다. 다른 리눅스 배포판에 비해 6개월 간격으로 새로운 버전이 배포되어 상대적으로 짧은 교환 주기를 갖는다. 또한 각 버전마다 13개월씩만 지원하므로 매우 짧다.

● 장점

- 리눅스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개발자가 선호하는 리눅스 배포판이다.(리눅스 커널의 개발자 리누스 투르발스가 사용하는 OS이다.)

- 최신의 기술을 체험 할 수 있다. (레드햇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제일 먼저 탑재된다고 보면 된다.)

- 개발을 위한 도구들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

● 단점

- 선택적인 업데이트에 따라서 에러가 발생되기도 하며 잔 에러가 많이 발생된다.

4. 민트

민트는 우분투를 기반으로 제박된 리눅스이다. 데비안 기반의 우분투를 기반으로 해서 결국 데비안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분투 기반이라고 하는 이유는 민트 중 데비안 기분의 민트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분투의 단점은 지원 기간에 있다. 따라서 우분투 기반의 민트도 우분투와 같은 지원기간을 갖게 된다. LTS버전 기반이면 5년, 일반버전이면 9개월의 지원기간을 갖는다. 하지만 데비안 기반의 리눅스 민트는 특별히 버전의 차별을 두지않고 업데이트팩을 배포함으로써 항상 최신의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다.

● 장점

- 우분투에 비해 여러 데스크탑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조금 더 화려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 사용자 편의를 위한 소소한 기능들이 많이 있다.

● 단점

- 지원기간의 문제가 있다.

- 리눅스 민트의 경우 업그레이드를 권장하지 않는다. 매번 새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5. 데비안

데비안 리눅스는 GNU의 공식적인 후원을 받는 유일한 배포판으로 패키지 설치 및 업그레이드가 단순하다. 데비안이라는 이름은 데비안 프로젝트의 창시자인 이안 머독과 그의 부인인 데브라의 이름에서 유래했다. 데비안은 안정성과 보안에 중점을 두어 다른 리눅스 배포판들의 기반으로 사용되고 있다.

● 장점

- 배포되고 있는 리눅스 중 서버의 안정성이 높다.

- 패기지가 많다.

● 단점

- 유명한 소프트웨어 상용이 불가능 하다.

- 설치는 쉽지만 설정은 어렵다.

6. 우분투

우분투는 데비안 GNU/리눅스에 기초한 컴퓨터 운영체제로서 고유한 데스크탑 환경인 유니티를 사용하는 리눅스 배포판이며

4월, 10월에 한번씩 업데이트가 이루어 진다. xx.04, xx.10로 나누어 지며 뒤에 04, 10은 발표 된 월을 xx같은 경우 는 배포된 년도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또 5년의 지원 기간을 가진 LTS(Long Term Service) 버전을 짝수해 상반기에 내놓습니다.

● 장점

- 리눅스를 처음접해도 설치가 간단하도록 배포 되었다.

- Unity라는 독자적인 데스크톱 환경을 제공한다.

- 국내에서도 많은 사용자가 있어 정보를 얻기가 쉽다.

● 단점

- LTS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한 6개월마다 대대적인 업그레이트를 해주어야한다.

- Unity의 경우 호불호가 갈리는 데스크탑 환경이다.

- LTS버전이어도 최신버전과는 차별이 있다.